

Promoting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Disaster Management

- Focused on the Victim's Satisfaction with Public and Private Relief Services -

Yun Jung Choi[#], Bo Reum Kim, Byung Hyun Par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Pusan National University, 2, Busandaehak-ro, 63beon-gil Geumjeong-gu, Busan, Korea

Abstract

The degree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disaster relief services is still insufficient and improper in South Korea. This study measured the satisfaction level of disaster victims with public and private support using a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older or married victims were relatively less likely to be satisfied with public support. As for the types of disaster they experienced, fire victims were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public support than typhoon victims. Victims living in Chungcheong region were more likely to be satisfied with public support than those in Seoul metropolitan area. The higher the social support, participation and discontent, the more likely they were to be satisfied with public support. Regarding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a disaster victim, the larger the damage they felt, the more likely they could be satisfied with public support. Based on these findings, practical policy measures were recommended to improve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Key words: disaster victims, public relief service, private relief service, relief service satisfac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1. 서론

점차 대형화되고 복잡해지는 재난의 양상은 우리 사회가 점차 위험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공공·민간 차원에서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되고 있지만 서비스가 체계적으로 제공되지 못하고 중복 또는 지연되는 등 원활한 재난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재난피해자들의 크고 작은 불만들이 재난지역의 갈등과 혼란을 더욱 크게 불러일으켜 재난이 장기화

되고 그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의 일상생활 회복과 안정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생활양식의 다변화와 생활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한 재난 관련 욕구 역시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기존의 재난 관련 법령 및 정책들에서 정해진 획일화된 지원 대책 만으로는 다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재난 피해자들의 욕구에 충족되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가 어려워졌다(Park, 2018)고 할 수 있다. Han(2006)은 우리나라의 재난대응 체계는 공공영역에서는 행정의 단변성과 복

[#] The 1st author: Yun Jung Choi, Tel. +82-51-510-1559, Fax. +82-51-517-4662, e-mail. yunjaaa@hanmail.net

⁺ Corresponding author: Byung Hyun Park, Tel. +82-51-510-2130, e-mail. bhpark@pusan.ac.kr

잡성이라는 한계를, 민간영역에서는 관련 조직들 간 연계의 부족과 일회적이고 물질 중심의 지원에 제한되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Lee(2012) 역시, 재난 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정책은 공공부문에서의 활동과 민간부문의 복구 활동(자원봉사단체 중심)이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는 재난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행정소송, 범죄 등)로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재난에 있어 민·관 협력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과 중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수의 연구(Yoo, 2016b; Kim & Choi, 2017; Kim, 2018)들이 재난에 따른 민관협력의 중요성과 그 효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공공 또는 민간이 재난 피해자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난 피해자들의 필요와 욕구가 어느정도 충족되는지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지원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선된 재난 대응 민·관협력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공과 민간에서 제공되는 재난 피해자 지원내용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고, 지금까지 재난 피해자를 대상으로 제공된 서비스의 지원처 만족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로써 재난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상황으로부터 가능한 한 빨리 회복하고 재난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체계적인 민·관 협력 서비스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문헌고찰

우리나라 헌법은 재난에 있어 국가의 예방 및 보호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²⁾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예방 및 재난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제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들의 대형 재난 사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예측하기 힘든, 복잡하고 큰 규모의 재난에 있어 공공만의 대응체계는 역량과 자원의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Jeong, 2009). 이에 따라 재난에 있어 민간 참여의 필요성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Lee & Bae, 2014; Yoo, 2016a),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재난 가운데 태풍 루사(2002)³⁾, 대구지하철 참사(2003),⁴⁾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2007)⁵⁾, 우면산 산사태(2011),⁶⁾ 세월호 침몰사고(2014)⁷⁾ 등의 여러 사례에서 민간영역의 참여가 재난의 피해 수습 및 복구에 없어서는 안될 상당한 역할을 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재난피해자의 일상생활 안정과 회복을 위하여 공공은 물론 민간영역의 지원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전술하였던 바와 같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있어, 민관협력 체계가 잘 갖춰지지 않아 서비스의 중복 또는 지연, 그로 인한 갈등 등 재난 피해자의 2차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⁸⁾ 공공 및 민간의 재난 피해자 지원 서비스는 재난피해자의 회복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원 만족도를 점검하거나, 지원이 재난피해

1) Kyongbuk Daily. 2018. 8. 9. 민·관 갈등조정 전문관제 도입 시급.

2) Article 34, Clause 6 of the Constitution.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3) 태풍 '루사'로 인해 가장 피해가 심각했던 강원도 지역에 찾아온 자원봉사자는 약 30일간 12만 6천여명으로 집계된다(Jeong, 2009).

4) 대구시 자원봉사자의 집계에 따르면 사고직후 2개월간 모두 1천 6백여개 단체에서 2만 6천여명이 재난구호와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하였다(Joongang Daily, 2003. 4. 17: 지하철참사 '자원봉사 물결' 60일).

5) 2007년 12월 8일부터 2008년 5월 말까지 개인 참여자들은 하루 평균 7,821명(Park, 2009)에 달하였으며, 참여한 기업부문 참여자 및 민간단체 등 자원봉사활동 조직은 총 17,278개였다(Jeong, 2009).

6) 집중호우로 인해 일어난 대규모 산사태로 서초구자원봉사센터 집계 총 4,902명의 민간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를 하였다(Korea Volunteer Center, 2016: <http://vc1365.tistory.com/640>).

7)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및 전라남도 자원봉사센터의 집계 따르면 민간 차원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참여는 총 92,039명이었다(Korea Volunteer Center, 2016: <http://vc1365.tistory.com/640>).

8) Pedien News. 2017. 11. 23. 지진피해 복구과정의 주민불편과 불만에 더욱 귀 기울여야. <http://www.pedien.com/news/articleView.html?idxno=175101>

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원서비스의 제공과 재난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기존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공공 및 민간영역의 지원 만족 여부와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과정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1. 국내 재난피해자 지원서비스 발달 추이

국내 재난구호 서비스는 정부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활동을 포함하는 재난 수습체계와 민간의 구호 및 지원체제로 구분되며, 그중 정부 지원체계는 크게 4단계로 발전하였다(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5). 첫째, 2002년 태풍 루사의 경우 피해자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 및 의연금 지급의 주체가 불명확하였으며, 지급 대상 선정과 금액산정 방식이 형평성에 맞지 않아 개선이 요구되었다. 또한 재난 피해자에게 필요한 심리치료를 지원하는 국가적

차원과 민간 차원의 지원이 전무 한 상태라 관련 서비스 마련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2003년부터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재난 피해자 보상기준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보완하였다. 둘째, 2007년부터는 자연재난에 국한되었던 보상기준을 사회재난으로 확대하기를 원하는 요구가 있었다. 선박 및 화학 사고와 같은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책임 소재가 법적으로 판결되어야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책임과 보상에 대한 법정 분쟁의 장기화에 따른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 지원 기준 및 지원방법을 수립하였다. 셋째, 재난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 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물질보상 위주의 재난관리시스템은 재난경험자의 심리적 손상을 도외시하여 사회병리현상이 발생하고 사회간접비용이 증가하는 문제점을 보였다. 따라서 2007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부터 자원봉사를 통해 지원을 시작한 심리상담서비스는 2012년 구미 불산 누출 사고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 검사 및 의료지원으로 지원

Table 1. Public relief services

Relief service	Contents
Government relief supplies	Securing disaster relief supplies and establishing a delivery system
Funeral support	Guarantee of funeral expenses
Temporary residence facility	a village hall, community center, church, etc
Tax support	Operating 'indirect support one-stop service for disaster victims' 6 areas (state tax, local tax, health insurance, pension insurance, recovery funds, loans, electricity charges)
Disaster relief fund	Disaster relief fund, emergency housing subsidy
Disaster support fund	victims' consolation prize
Temporary Housing	Support for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Operation of catering, laundry, and catering facilities	Food truck, laundry service (national disaster relief association) and meal service(saemaeul women's association)
Medical service	Medical expenses support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prevention activities	Prevention activities (infectious diseases, pest control, and odor removal)
A relief fund for victims	National donation(social welfare community chest)
Relief supplies	Red cross, national disaster relief association (NRC), corporate relief aid (payment of sponsorships through a private social safety net)
Volunteer activity	Support from the national disaster relief association, the Korean national red cross, private organizations, businesses, individuals. - volunteer for temporary housing facilities, on-site support, housing repair
Psychological recovery support	Disaster sychological support center

※ Sourc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2015: 17-52). rearrangement.

이 확대되었다. 넷째, 구호서비스 제공과 확대를 위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원스톱 서비스 체계는 재난 피해자가 서비스와 관련한 정보가 없거나 스트레스로 인한 심리적 불안으로 서비스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의 관료주의적 태도 때문에 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5).

1) 공공영역의 지원 서비스 내용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의 서비스 내용은 물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형태, 주거시설과 같은 장소 제공, 그리고 의료 및 심리, 생활서비스 제공 등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에서 지원하는 위로금 차원의 피해 지원금과 단기적(6개월~2년)인 물품·세제 지원은 실제 재난 피해자들에게 생활안정 및 재난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에 한계가 있음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재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주체가 공공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며, 또한 공공의 지원이 신체적·물질적 피해 지원에 집중하고 있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7). 이는 우리나라 공공의 재난 대응 구조가 중앙집권적 관리체제로 사전인증과 관리절차 등의 제약이 많으며, 상위 조직으로써 일선 조직에 비해 포괄적인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등의 문제로 인함이라 볼 수 있다(Han, 2018).

2019년 현재 재난관리업무는 행정안전부 산하 재난안전관리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데(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9), 재난안전관리본부는 장차관 직속부서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안전감찰담당관을 배치하였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재난 대응책 수립과 대응시스템 구축을 담당하고 재난 상황 발생 시 관련 정보 접수·전파·초동보고를 맡고 있다. 그 밖에도 재난안전관리본부 산하에는 안전정책

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비상대비정책국이 있어 재난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별 업무 및 안전교육을 담당하고 있다(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9).

2) 민간영역의 지원 서비스

민간영역의 구호 기관으로는 전국재난구호협회와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민간자원봉사단체 등이 있다(Choi, 2016). 재난에 따른 민간영역의 지원은 부식(김치, 쌀 등) 음식 지원, 민간의연금(성금) 지원, 가전제품·가재도구 수리 지원, 자원봉사자 지원(노약자·영유아 돌보미, 말벗 도우미 등), 민간 일자리 지원, 민간 교육비 지원과 같은 서비스의 제공으로 나타난다.

민간기업과 전국재해구호협회에서는 2015년 민관합동 재해구호물자 지원체계를 통하여 구호물자, 물류 기반시설 등을 제공하는데 협조하고 있다. 지원체계는 권역별 물류센터 7개소 전국재해구호협회(과주, 함양), 민간물류센터(강릉, 안성, 나주, 대구, 제주)를 활용하여 재해 발생시 가장 인접한 물류센터에서 생필품 등이 재해현장에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돕는다. 민간영역에서 지원하는 구호물품은 기존 생필품을 포함하여 식품(김치, 쌀 등), 의약품, 민간의연금, 가전제품·가재도구 수리, 자원봉사자(노약자·영유아 돌보미, 말벗 도우미 등), 민간 일자리, 민간 교육비 지원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⁹⁾.

2. 재난 피해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난피해자의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난경험 관련 문항, 그리고 신체, 심리, 사회적 측면에서 진행되었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PTSD, 우울증상, 개인레질리언스와 같은 심리요인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지지, 공격신뢰와 같은 사회요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다(Min, *et. al.*, 2018; Yoon, *et. al.*, 2018; Cho & Yang, 2013; Choi, *et. al.*, 2007).

9) Press release from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2015. 11. 12. 민간단체, 재난구호 현장의 선봉장 되다.

재난을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재난경험을 주요한 변수로 다루고 있다 (Yoon, *et. al.*, 2018).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자가 경험한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서비스 욕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재난 피해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한 구호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다른 연구에서는 재난요인에 속하는 생명위협 체감여부, 상해·질병 피해여부, 체감 피해의 규모 요인들이 재난 상황에서 재난갈등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밝혀졌다(Lim, *et. al.*, 2019). 또한 PTSD가 발병하는데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트라우마의 경험, 재난당시 인명피해 경험, 재난 후의 자산감소, 경제적 어려움도 있었다 (Lim & Sim, 2018). 이처럼 재난유형이 서비스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도 재난의 유형과 관련한 요인들을 독립변수에 추가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재난 관련 요인 외에도 재난 피해자 대상 연구에서 가장 많이 다루는 요인들은 크게 신체, 심리, 사회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Lee, *et. al.*(2018)의 연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에 노출된 지역인 안산시와 진도군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서 주관적 건강수준, 걱정수면 여부, 주관적 스트레스, 건강관련 삶의 질 등이 유의미하게 악화되었다는 결과를 보여준다. 또한 Chung, *et. al.*(2011)의 연구는 재난을 경험한 지역에서 주관적 건강상태, 우울 및 불안의 정서가 나뉘수록 부부관계가 악화되었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처럼 주관적 건강상태가 재난 이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요인임을 감안하여 독립변수에 포함하였다.

재난에서 사회적 요인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경주에서 지진 재난을 간접 경험한 사람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연구한 결과 사회적지지와 사회적자본이 적을수록 사람들의 PTSD 증상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in, *et. al.*, 2018). 또한 사회적지지와 사회적 자본, 공적신

뢰도가 낮을수록 심리사회적 부적응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자본과 공적신뢰도는 역시 개인의 정신적웰빙 즉, 행복감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자연재난 생존자를 위한 사회적지지가 부족한 경우 불안증상이 악화된다는 연구도 있었다(Cho & Yang, 2013). 최근에 이루어진 Lim, *et. al.*(2019)의 연구에서는 국가차원의 재난 지원이 재난 갈등이 발생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였다. 국가차원의 지원은 경제적지원, 보건의료서비스, 심리상담, 환경 및 시설복구 변수를 포함하고 있었으며 해당 서비스의 지원 부족이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난피해자의 사회적 요인들이 이후 회복과 연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결과들을 토대로 사회적 적응, 사회적지지, 사회 참여도, 재난 후 사회적 불만, 제공 받은 정보 신뢰성, 제공 받은 정보 만족감, 재난으로 인한 갈등경험 여부를 독립변수로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재난피해자의 심리 건강상태와 관련한 연구를 통하여 재난을 겪은 후 사람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traumatic disorder, PTSD)를 겪기도 하며 PTSD를 겪는 피해자가 그렇지 않은 피해자에 비해 대인관계 만족, 대인관계 신뢰, 불안, 우울, 주관적 웰빙 등에서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Lim & Sim, 2018). 또한 Min, *et. al.*(2018)의 연구에서 지진을 간접 경험한 일반인의 정신건강 수준의 세 변수에(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심리사회적 부적응, 정신적 웰빙) 개인 리질리언스가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온다. Cho & Yang(2013) 연구에서는 자연재난 생존자들의 연령이나 외상 후 생겨난 부정적인 신념의 정도, 사회적 지지부족, 동거인 여부 등이 장기적인 PTSD, 불안증상, 우울증상을 포함하는 장기적인 심리적 증상들에 유의미한 예측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처럼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부정적 심리상태는 재난 직후 초기에 심리상담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높은 사회적응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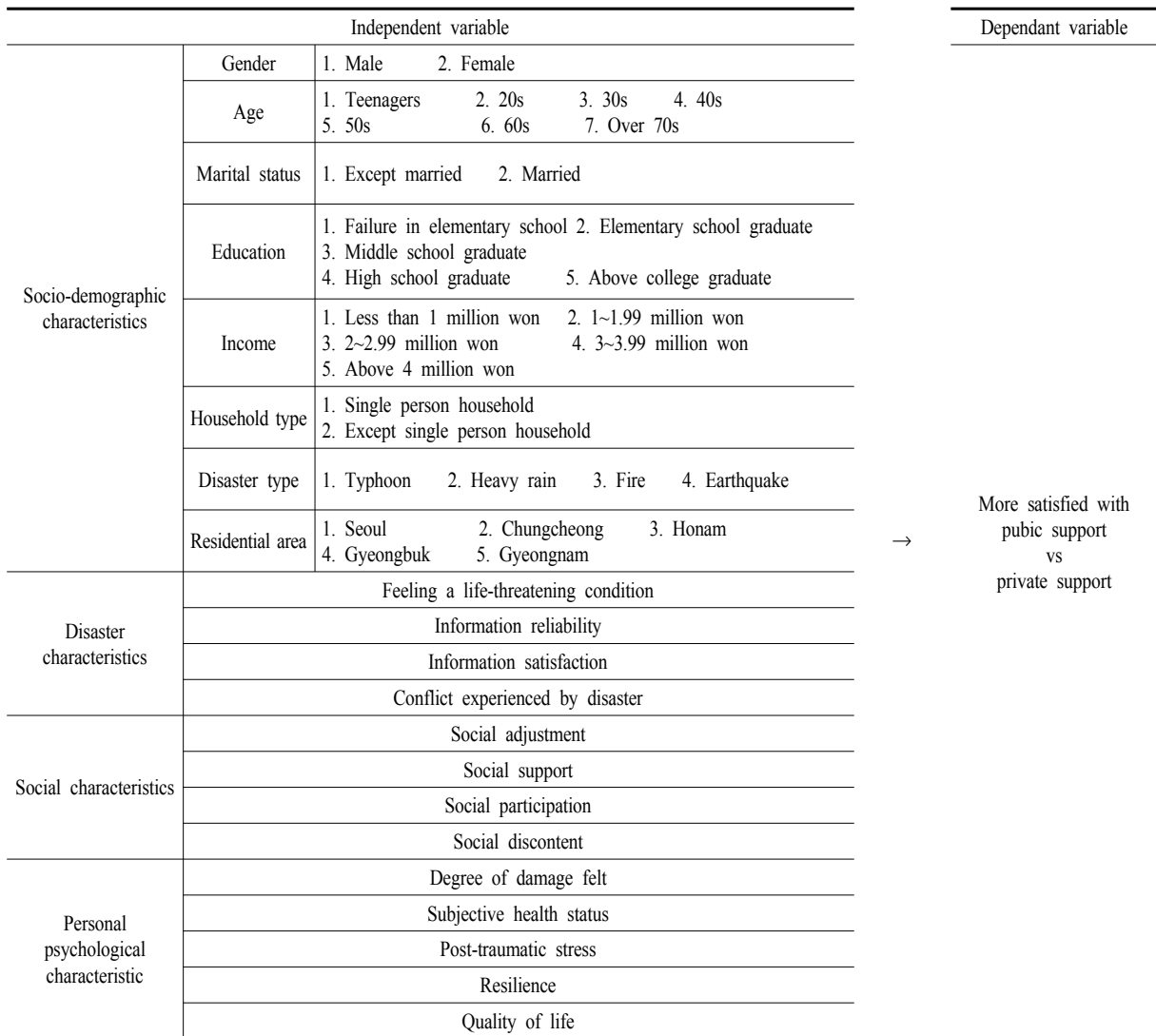


Figure 1. Research model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Choi, 2006) 심리상담과 같은 서비스가 재난피해자에게 필요하며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심리 건강 상태 요인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회복탄력성, 삶의 질을 주요 변수로 선정하였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모형은 <Figure 1>과 같다. 독립변수는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된 요인을 기준으로 인구사회학

적 특성, 재난관련 특성, 사회적 특성, 개인 심리적 특성으로 구분되었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해당되는 성별, 연령대, 결혼상태, 학력, 수입, 가구 형태와 피해를 입은 재난의 유형, 거주지역이다. 다음으로 재난관련 특성에 해당되는 생명위협 체감 여부(재난을 겪을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지), 제공된 정보의 신뢰성(재난 후 구호 및 복구 과정에 대한 정보가 믿을만 했는지), 제공된 정보의 만족감(제공받은 정보는 재난복구과정에 만족스러운 도움을 주었는지), 재난으로 인한 갈등 경험(재난 이후 갈등을 경험하였는지)이다. 사회적 특성으로는 사회적 적응¹⁰⁾, 사회적

10) 사회적 적응은 Mundt, Marks, Shear와 Greist(2002)가 개발한“일과 사회적 적응척도(The Work and Social Adjustment Scale; WSAS)”이며,

지¹¹⁾, 사회 참여도¹²⁾, 사회적 불만¹³⁾으로 측정하고자 하였으며, 개인 심리적 특성으로는 피해 손실규모의 체감도, 재난 이후 주관적인 건강상태, 외상 후 스트레스¹⁴⁾, 회복탄력성¹⁵⁾, 삶의 질¹⁶⁾이 포함되었다. 종속변수는 지원에 대한 만족으로 공공지원에 대한 만족 여부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조사된 재난피해자의 재난 후 경제, 사회, 보건, 심리 패널(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7)을 사용하였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재난피해자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태풍 호우로 인한 침수피해자, 2016년 의정부 화재사고, 시장화재(여수 수산물시장화재, 서문시장 제4지구 화재, 인천 소래포구시장 화재)사고 피해자 총 1,600명”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최종 분석에 활용된 유효 표본은 전체 표집 1,600명에서 본 연구의 종속변수에 응답하지 않은 1,089명을 제외한 총 511명이다. 자료의 분석은 R ver. 3.5.1과 JAMOVI 0.9.5.12 를 이용하였으며, 공공지원의 만족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분석결과

1.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 <Table 2>와 같다. 전체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여성이 271명(53.0), 남성이 240명(47.0%)으로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39명(27.2%)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50대 107명(20.9%), 40대 70명(13.7%), 30대 35명

(6.8%), 20대 34명(6.7%)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10대도 3명(0.6%)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력은 고졸이 224명(43.8%)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중졸 80명(15.7%), 대학이상 79명(15.5%), 초졸 76명(14.9%), 초졸이하 52명(10.2%) 순으로 비교적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응답자의 거주지역은 경남권이 219명(42.9%)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호남권 108명(21.1%), 수도권 77명(15.1%), 경북권 57명(11.2%), 충청권 50명(9.8%)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는 기혼이 443명(86.7%)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기혼 외(미혼, 이혼, 별거, 사별 등)는 68명(13.3%)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수입은 300만원대가 118가구(23.1%), 100만원 미만이 117가구(22.9%), 200만원대가 96가구(18.8%), 100만원대가 93가구(18.2%), 400만원 이상이 87가구(17.0%)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동거인이 있는 응답자가 439명(85.9%)로 많았고, 1인가구가 72명(14.1%)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경험한 재난의 유형은 호우가 205명(40.1%)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태풍이 188명(36.8%), 화재 85명(16.6%), 지진이 33명(6.5%)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가 경험한 재난의 손실규모는 피해가 매우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18명(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피해가 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85명(36.2%), 피해정도가 보통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80명(15.7%), 피해가 작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1명(4.1%), 피해가 매우 작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7명(1.4%)으로 대부분 응답자의 체감피해정도가 심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재난으로 이후 거주지 주민이나, 지자체, 중앙정부 등과의 갈등경험에 대해서는 갈등이 없었다는 응답이 426명(83.4%), 갈등이 있

Son(2016)이 번역·재구성한 척도로 ‘재난 후 사회적 적응’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11) 사회적 지지는 Park(1985)이 개발한 “사회적 지지척도”를 Yu & Seol(2015)가 수정·보완한 척도로 ‘재난 후 사회적 지지의 인식’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12) 사회 참여도는 Ji, et. al.(2015)가 개발한 “사회적 자본지표”를 재구성하여 ‘재난 후 사회 활동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13) 사회적 불만은 Kaniasty(2012)의 “원조와 대인관계 및 지역사회의 적대감과 불일치에 대한 불만으로 조작된 사회적 불안감 지표”를 이용하여 ‘지각된 지역사회 통합과 결속의 결핍’에 대하여 조사되었다.

14) 외상 후 스트레스는 Eun, et. al.(2005)의 “한국판 사건충격척도”를 재구성하여 조사되었다.

15) 회복 탄력성은 Smith, Dalen, Wiggins, Tooley, Christopher와 Bernard(2008)의 “탄력성 척도”를 재구성하여 조사되었다.

16) 삶의 질은 Min(2002)의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를 재구성하여 조사되었다.

Table 2. General descriptive statistics results of the survey target

(N=511)

Division		Freq.	%	Division		Freq.	%
Gender	Male	240	47.0	Marital status	Married	443	86.7
	Female	271	53.0		Except married	68	13.3
Age group Mean:58.23 SD:17.693 Min:11 Max:99	10s	3	0.6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117	22.9
	20s	34	6.7		1~1.99 million won	93	18.2
	30s	35	6.8		2~2.99 million won	96	18.8
	40s	70	13.7		3~3.99 million won	118	23.1
	50s	107	20.9		Above 4 million won	87	17.0
	60s	139	27.2	Household type	Single person	72	14.1
Above 70s	123	24.1	Except single person		439	85.9	
Education	Below elementary	52	10.2	Disaster type	Typhoon	188	36.8
	Elementary sc graduate	76	14.9		Heavy rain	205	40.1
	Middle sc graduate	80	15.7		Fire	85	16.6
	High sc graduate	224	43.8		Earthquake	33	6.5
	Above college	79	15.5		Satisfaction with support by	Public	304
Residential area	Seoul	77	15.1	Private		207	40.5
	Chungcheong	50	9.8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146	28.6
	Honam	108	21.1		Normal	150	29.4
	Gyungbuk	57	11.2		Good	215	42.1
	Gyeongnam	219	42.9	Feeling a life-threatening	Yes	249	48.7
Degree of damage felt	Very weak	7	1.4		No	262	51.3
	Weak	21	4.1	Information reliability (N=353)	Yes	345	97.7
	Medium	80	15.7		No	8	2.3
	Strong	185	36.2	Information satisfaction (N=353)	Very unsatisfactory	14	4.0
	Very strong	218	42.7		Unsatisfactory	49	13.9
Conflict experienced	Yes	85	16.6		Satisfactory	247	70.0
	No	426	83.4	Very satisfactory	43	12.2	
Division		Mean	SD	Min	Max		
Social adjustment		1.66	.995	1.00	5.00		
Social support		3.45	.654	1.00	5.00		
Social participation		2.97	.502	1.00	5.00		
Social discontent		2.63	.413	1.60	4.00		
Post-traumatic stress		1.07	.885	.00	4.00		
Resilience		3.21	.622	1.17	5.00		
Quality of life		2.91	.663	1.00	4.71		

었다는 응답이 85명(16.6%)으로 나타났다. 재난이후 주관적인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좋다가 215명(42.1%), 보통이다가 150명(29.4%), 나쁘다가 146명(28.6%)순으로 나타났다. 재난 이후에 국가의 지원과 민간의 지원 중 어떤 지원 내역에 더 만족하였는가에 대해서는 공공이 304명(59.5%), 민간이 207명(40.5%)순으로 나타

났으며, 재난을 겪을 당시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가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응답이 262(51.3%) 그렇다는 응답이 249(48.7%)로 나타났다. 재난이 발생한 후 제공받은 정보가 믿을만한 정보였는가에 대해서는 그렇다가 345명(97.7%)으로 매우 높았으며, 아니라는 응답은 8명(2.3%)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정보 신뢰성이 매우 높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공받은 정보가 재난복구 과정에서 만족스러운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247명(70.0%),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응답이 49명(13.9%), 매우 도움이

Table 3. Support satisfaction difference verification result by major variable

Division		Public satisfactory Freq.(%)	Private satisfactory Freq.(%)	X ²
Gender	Male	114(60.0)	96(40.0)	0.049
	Female	160(59.0)	111(41.0)	
Age group	10s	2(66.7)	1(33.3)	7.818
	20s	22(64.7)	12(35.3)	
	30s	17(48.6)	18(51.4)	
	40s	43(61.4)	27(38.6)	
	50s	63(58.9)	44(41.1)	
	60s	74(53.2)	65(46.8)	
	Above 70s	83(67.5)	40(32.5)	
Education	Below elementary	34(65.4)	18(34.6)	1.666
	Elementary sc graduate	45(59.2)	31(40.8)	
	Middle sc graduate	47(58.8)	33(41.3)	
	High sc graduate	135(60.3)	89(39.7)	
	Above college	43(54.4)	36(45.6)	
Marital status	Married	186(54.2)	157(45.8)	11.995***
	Except married	118(70.2)	50(29.8)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74(63.2)	43(36.8)	5.297
	1~1.99 million won	53(57.0)	40(43.0)	
	2~2.99 million won	63(65.6)	33(34.4)	
	3~3.99 million won	70(59.3)	48(40.7)	
	Above 4 million won	44(50.6)	43(49.4)	
Residential area	Seoul	55(71.4)	22(28.6)	50.473***
	Chungcheong	27(54.0)	23(46.0)	
	Honam	53(49.1)	55(50.9)	
	Gyungbuk	14(24.6)	43(75.4)	
	Gyeongnam	155(70.8)	64(29.2)	
Household type	Single person	47(65.3)	25(34.7)	1.164
	Except single person	257(58.5)	182(41.5)	
Disaster type	Typhoon	113(60.1)	75(39.9)	54.690***
	Heavy rain	149(72.7)	56(27.3)	
	Fire	22(25.9)	63(74.1)	
	Earthquake	20(60.6)	13(39.4)	
Feeling a life-threatening	Yes	159(63.9%)	90(36.1%)	3.838
	No	145(55.3%)	117(44.7%)	
Information reliability	Yes	194(56.2)	151(43.8)	.125
	No	5(62.5)	3(37.5)	
Information satisfaction	Very unsatisfactory	7(50.0)	7(50.0)	10.579*
	Unsatisfactory	38(77.6)	11(22.4)	
	Satisfactory	130(52.6)	117(47.4)	
	Very satisfactory	24(55.8)	19(44.2)	
Conflict experienced by disaster	Yes	43(50.6)	42(49.4)	3.353
	No	261(61.3)	165(38.7)	
Degree of damage felt	Very weak	6(85.7)	1(14.3)	25.954***
	Weak	14(66.7)	7(33.3)	
	Medium	59(73.8)	21(26.3)	
	Strong	122(65.9)	63(34.1)	
	Very strong	103(47.2)	115(52.8)	
Subjective health status	Bad	88(60.3)	58(39.7)	.893
	Normal	93(62.0)	57(38.0)	
	Good	123(57.2)	92(42.8)	

*p<.05, **p<.01, ***p<.001

되었다는 응답이 43명(12.2%),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응답이 14명(4.0%) 순으로 나타나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응답자가 재난 후 경험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 및 갈등에 대한 질문으로, 먼저 사회적 적응 정도는 1.66(.995)점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적지지 정도는 3.45(.654)점, 사회 참여도 정도는 2.97(.502)점, 사회적 불만 정도는 2.63(.413)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재난 경험 후 심리상태와 관련한 질문으로, 먼저 외상 후 스트레스 검사에서는 1.07(.885)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회복탄력성에서는 3.21(.622)점, 삶의 질은 2.91(.663)점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주요 변수에 따른 지원 만족처 차이

주요 변수별로 만족하는 지원처를 살펴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대부분의 항목에서 민간보다 공공에 대한 만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거주지역이 호남권(50.9%), 경북권(75.4%)인 경우 그리고 재난의 유형이 화재(74.1%)인 경우, 체감 피해정도가 매우 크다고 생각(52.8%)하는 경우에는 민간에 대한 만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다수의 변수들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력과 연령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소득과 연령에서도 부(-)적 상관관계가, 소득과 학력은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이후 주관적 건강에서는 연령은 부(-)적 상관관계가, 학력과 소득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피해규모에서는 연령과 정(+)적 상관관계, 건강과 정보에 대한 만족에서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적 적응에서는 연령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학력, 소득, 건강에서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사회적 지지는 연령, 사회적 적응과의 부(-)적 상관관계, 학력, 소득, 건강, 정보만족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참여에서는 연령, 피해규모, 사회적 적응에서 부(-)적 상관관계, 학력, 소득, 건강, 사회적 지지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사회적 불만은 정보에 대한 만족과 사회적 지지에서 부(-)적 상관관계, 사회적응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와는 학력, 소득, 건강, 사회적지지, 사회적 참여에서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연령, 사회적 적응에서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연령, 사회적 적응, 사회적 불만, 외상 후

Table 4. Correlation analysis result

Division	age	1	2	3	4	5	6	7	8	9	10	11
1. Education	-.632***											
2. Income	-.375***	.402***										
3. Health	-.486***	.422***	.363***									
4. Information satisfaction	.000	.004	.005	.082								
5. Degree of damage	.090*	-.052	.028	-.095*	-.170**							
6. Social adjustment	.290***	-.282***	-.268***	-.536***	-.081	.009						
7. Social support	-.215***	.141**	.211***	.299***	.168**	.003	-.152**					
8. Social participation	-.101*	.153**	.194***	.261***	.105	-.141**	-.265***	.156**				
9. Social discontent	.028	-.003	-.018	-.072	-.223***	.021	.123**	-.235***	-.043			
10. Post-traumatic stress	.259***	-.177***	-.245***	-.496***	-.034	.070	.660***	-.161***	-.117*	.077		
11. Resilience	-.275***	.216***	.224***	.434***	.102	-.071	-.409***	.287***	.143**	-.108*	-.460***	
12. Quality of life	-.357***	.333***	.366***	.632***	.158**	-.120*	-.498***	.450***	.265***	-.173***	-.505***	.574***

*p<.05, **p<.01, ***p<.001

스트레스에서 부(-)적 상관관계를, 학력, 소득, 건강, 사회적지지, 사회적 참여에서는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삶의 질에서는 연령, 피해규모, 사회적 적응, 사회적 불만, 외상 후 스트레스 간에는 부(-)적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학력, 소득, 건강, 정보에 대한 만족, 사회적지지, 사회적 참여, 회복탄력성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80점 이상의 상관관계는 확인되지 않아, 이후 진행될 다중회귀분석에 있어 변수 간의 문제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지원 만족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재난피해자의 지원 만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공공지원을 기준으로 이변항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재난관련 특성, 사회적 특성, 개인 심리적 특성 요인 모두를 투입한 결과는 아래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위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변수인 연령대, 혼인상태, 재난유형, 거주지역, 사회적지지, 사회 참여도, 사회적 불만, 체감 피해 규모 변수 8개만 선택하여 모형에 투입한 결과는 <Table 6>과 같이 나타났다.

모든 독립변수를 투입한 Model 1과 유의미한 변수

Table 5.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Model 1

Division		Estimate	S.E.	Z	p	Odds rati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Gender(female)	-0.12	0.30	-0.40	0.689	0.889	
	Age group	-0.34	0.14	-2.42	0.016	0.713	
	Marital status (married)	-0.95	0.41	-2.30	0.021	0.386	
	Education	-0.09	0.17	-0.51	0.613	0.918	
	Income	0.19	0.12	1.53	0.126	1.208	
	Household (except single person household)	-0.92	0.53	-1.73	0.084	0.399	
	Disaster type	Heavy rain	-0.27	0.43	-0.62	0.533	0.766
		Fire	1.68	0.56	3.00	0.003	5.366
		Earthquake	0.77	0.57	1.35	0.178	2.167
	Residential area	Chungcheong	1.57	0.64	2.47	0.013	4.809
		Honam	0.82	0.59	1.39	0.166	2.261
		Gyeongbuk	1.23	0.75	1.64	0.100	3.414
Gyeongnam		-0.94	0.55	-1.70	0.089	0.392	
Disaster characteristics	Feeling a life-threatening condition (no)	-0.25	0.32	-0.78	0.434	0.779	
	Information reliability (no)	0.09	0.91	0.09	0.925	1.089	
	Information satisfaction	-0.08	0.23	-0.36	0.719	0.921	
	Conflict experienced by disaster (no)	0.08	0.40	0.19	0.846	1.080	
Social characteristics	Social adjustment	0.25	0.22	1.12	0.263	1.281	
	Social support	0.76	0.25	3.05	0.002	2.139	
	Social participation	0.38	0.13	2.86	0.004	1.463	
	Social discontent	0.77	0.37	2.10	0.036	2.164	
Person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Degree of damage felt	0.40	0.18	2.25	0.024	1.487	
	Subjective health status	0.10	0.14	0.73	0.464	1.109	
	Post-traumatic stress	-0.16	0.24	-0.65	0.513	0.855	
	Resilience	0.01	0.28	0.04	0.968	1.011	
	Quality of life	-0.21	0.32	-0.64	0.520	0.813	

*p<.05, **p<.01, ***p<.001

※ Source: Criterion variable gender “male” / marital status “except married” / household type “single person household” / disaster type “typhoon” / residential area “Seoul” / Feeling a life-threatening condition “yes” / Information reliability “yes, reliable” / Conflict experienced by disaster “yes”

Table 6.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sult Model 2

Division		Estimate	S.E.	Z	p	Odds rati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group	-0.10	0.07	-1.40	0.160	0.906	
	Marital status (married)	-0.48	0.23	-2.06	0.039	0.622	
	Disaster type	Heavy rain	-0.47	0.29	-1.62	0.104	0.625
		Fire	1.20	0.37	3.23	0.001	3.326
		Earthquake	0.29	0.43	0.67	0.501	1.332
	Residential area	Chungcheong	1.04	0.45	2.33	0.020	2.831
		Honam	0.50	0.41	1.22	0.222	1.642
Gyeongbuk		0.92	0.49	1.87	0.061	2.522	
Gyeongnam		-0.17	0.39	-0.44	0.658	0.840	
Social characteristics	Social support	0.37	0.17	2.17	0.030	1.443	
	Social participation	0.07	0.09	0.83	0.405	1.074	
	Social discontent	0.35	0.26	1.33	0.183	1.420	
Personal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Degree of damage felt	0.31	0.12	2.49	0.013	1.361	

*p<.05, **p<.01, ***p<.001

※ Source: Criterion variable: marital status "except married"/ household type "single person household"/ disaster type "typhoon"/ residential area "Seoul"

만을 투입한 Model 2의 적합도는 <Table 7>과 같이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대한 추론은 이탈도 (Deviance)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데, 이탈도의 값이 작을수록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모형 비교 기준으로 최대우도의 독립변수 갯수에 의한 손실 가중치 계산법에 따라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와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두 가지를 모두 살펴보았다. 두 값 모두 수치가 작을수

록 올바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두 모델을 비교해보면 Model 1이 더 적합하다고 하겠다. 한편 R2은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로 Model 1의 설명력은 McFadden's R2 이 26.1%를 Cox와 Snell의 R2에서는 30.1%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가지고 Model 1의 만족처에 대한 예측 (Prediction)을 시도하였다. 분류정확도(Accuracy)는 74%로 나타났으며, 또 다른 분류의 정확도를 나타내는

Table 7. Model summary

Model	Deviance	AIC	BIC	R2McF	R2CS	Overall Model Test		
						χ^2	df	p
1	357.27	411.27	515.66	0.261	0.301	126.34	26	<.001
2	592.11	620.11	679.42	0.142	0.174	97.76	13	<.001

Table 8. Classification table

Observed	Predicted			% Correct
	More satisfied with			
	Public support	Private support		
More satisfied with	Public support	154	45	77.39
	Private support	48	106	68.83
Accuracy	Specificity	Sensitivity		AUC
0.74	0.77	0.69		0.83

※ Source: cut-off value is set to 0.5.

AUC(area under the curve)는 83%로 나타났다.

V. 결론 및 제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혼 가구에서 공공지원에 만족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인의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된 경향이 있으며 자립적인 행동이 어려워 적절한 대처 행동을 하지 못하는 등 재난 시 가장 큰 피해의 대상이 된다(Lee & Kim, 2004). 따라서 노인에 대한 개입은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참여자의 51.3%가 60세 이상으로, 노년층은 재난 관련 지원처나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 습득의 어려움이 있다. 또한 정보를 알더라도 지원을 받기 위한 노력을 다른 연령층에 비해 비교적 적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의 노년층을 대상으로 재난 관련 서비스 및 지원 내용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재가 노인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재난 및 안전 점검 및 교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지역의 재가 노인에 서비스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노인 인구에 대한 정보가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 지자체가 이를 활용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민간영역과의 정보공유 및 자원분배를 통해 취약한 노인가구의 재난안전 대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민관협력은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대응방안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혼 가구에서 공공지원에 만족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른 지원금 감액에 의한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이 아닌 가족을 단위로 정책을 펼치는 가족중심주의가 대부분의 정책들에 내재되어 있다(Yang, 2004). 예를 들어,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지원(2018년 기준)의 경우 1인 432,900원에서 2인 737,200원으로 약 15%

가 감소한다. 3인이 되면 약 27% 감소하는 등 인원수를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가족을 단위로 하여 제공하는 지원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보장으로써 수준이 낮아져 미미한 정도의 도움을 줄 수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재난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지원은 개인의 회복에 초점을 맞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재난 발생 후 지자체 차원에서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복구를 위한 보조적인 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취약가구의 피해는 다른 가구의 피해보다 치명적이며, 재난 이전으로의 회복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에 해외 다른 국가의 경우 재난취약계층에 있어 민관협력체계를 통하여 개별 욕구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인 배려와 지원을 제공한다(Cho, *et. al.*, 2018). 이는 공공의 인력 및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민관협력의 필요성이 매우 부각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재난 유형에 따라서는 화재 피해자가 태풍 피해자보다, 충청권 거주자가 수도권 거주자보다 공공 지원에 만족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유형에 따른 만족 여부는 보상체계에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화재의 경우 1973년 ‘화재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4층 이상 건물과 숙박업소 등 특수건물은 화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태풍을 포함한 풍수해보험의 경우 의무 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가입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는 주로 농촌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비교적 피해가 적은 도시지역에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며, 일부 정부가 지원하는 무상복구비가 지원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보험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실정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 것을 고려하였을 때, 화재보험과 같이 풍수해보험의 의무화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Shin, 2008).

지역에 따른 만족도는 충청 지역의 피해자가 수도

권 지역의 피해자보다 공공의 지원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도시지역에 재난안전과 관련한 예산투자가 많고, 소방 및 의료와 같은 재난안전인프라의 접근성이 좋고, 그에 반해 농촌지역은 도시에 비해 재난안전과 관련한 인프라 접근성이 떨어진다. 재난과 관련한 예산투자 역시 매우 소극적이다(Choi, *et. al.*, 2017). 이렇듯 열악한 상황에서도 공공의 지원에 더욱 만족한다는 결과는 지역주민의 재난에 대한 관심도에 따른 결과 또는 이 지역자체에 대한 재난관련 민간지원의 공백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Choi, *et. al.*(2017)는 도시와 농촌지역 재난안전 인식조사 결과에 따라 농촌지역 주민의 재난에 대한 관심도가 도시지역 주민의 관심도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음을 밝혔다. 이는 충청권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자연재해 발생횟수 및 인명피해가 가장 적었던 지역(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Institute, 2017)인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난은 예방하고 대비하는 만큼 그 피해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인식이 낮은 지역을 우선으로 하여 재난대비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재난 취약지역과 재난에 대한 인식이 비교적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이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이 지역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재난 유형에 대한 예방과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시스템 마련 및 인프라의 확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특성에서는 사회적지지, 사회적 참여도, 사회적 불만이 높을수록 공공지원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지원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신청주의 원칙에 따른 지원이 다수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지지와 참여도, 불만이 높은 집단에서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공공지원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와 사회가 대형·복잡화됨에 따라 관 주도의 대책만으로는 국민 안전의 욕구 수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졌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적절한 수준의 안전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사

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해나가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Shin, 2013). 따라서 정부는 재난대응체계 마련에 있어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특히, 사회적지지, 사회적 참여도, 사회적 불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사회 관심도가 높은 주민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지자체는 지역의 재난 대응 리더를 선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서는 체감 피해규모가 클수록 공공지원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재난으로 인한 국가 보상의 경우 원인규명과 행정상의 절차, 보상의 형평성 등에 따라 시간이 오래 걸리며, 보상 수준도 피해주민이 필요로 하는 바에 비해 매우 적은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비교적 경미한 피해자로서 보상액 산정에 논란이 있는 경우가 아닌, 드러난 피해 정도나 시급성이 매우 큰 관계로 즉각적인 지원이 제공된 경우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재난 피해자들의 경우 긴급구호 서비스 등에 만족할수록 정부의 재난 구호 성과를 높게 평가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근거로 한다(Kim, 2019). 재난은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며, 점차 대형화·복잡화되고 있어 정규화·규범화된 대응방안이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상시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지역 및 지역주민의 특성에 따라 맞춤형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다 현실성 있는 민관협력 구호서비스를 설계하여 현재의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재난구호서비스의 양적인 개선을 넘어서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리적인 서비스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재난피해자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여 재난지원서비스에 대한 효과성 평가 및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으며, BK21+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또한 2017년 정부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패널데이터를 활용하여 진행된 연구임.

References

- Cho, Min Kyung, Hong Sic Yoon and Joo Lee Yoon. 2018. A Study on Disaster Response Strategies for Disaster Vulnerable Layers: Comparative Analysis of Foreign Cases. Conference Materials.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595-597.
- Cho, Yong Rae and Sang Sik Yang. 2013. Peri-Traumatic Dissociation, Post-Traumatic Negative Beliefs, and Poor Social Support As Predictors of Long-Term Psychological Symptoms Following a Natural Disaster.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32(4): 955-979.
- Choi, Nam Hee, Joo Hoon Byun, Dong Il Han, and Sook Bin Im. 2007. Psychological Impact and Depressive Response of Sufferers of Natural Disaster, a Torrential Downpou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16(2): 139-149.
- Choi, Nam Hee. 2006. Establishing the Public Support System for Disaster Survivors. *Crisisonomy*. 2(2): 1-18.
- Choi, Song Sik. 2016. Theoretical Considerations for the Conceptual Construction about Disaster Social Welfare in Korea, *Social Welfare Policy and Practice*. 2(2): 39-91.
- Choi, Yun Jung, Won Hoi Koo, and Min Ho Baek. 2017.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Survey and Comparison for Disaster Safety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13(3): 388-397.
- Chung, Soon Dool, Jong Hee Kim, and Go Eun Kim. 2011. Relationship Changes of Married Couples after Disaste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1(5): 169-174.
- Eun, Hun Jeong, Tae Wan Kwon, Sun Mi Lee, Tae Hyoung Kim, Mal Rye Choi, and Soo Jin Cho. 2005. A Study on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Journal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4(3): 303-310.
- Han, Dong Woo. 2006. Problems and Challenges of Korea's Disaster Relief System: Practical Support for Disaster Victims and Networking of Relief Systems in the Private Sector. *Crisisonomy*. 2(2): 36-51.
- Han, Seung Joo. 2018. Understanding the Korean Government Responses to Social Disasters in Post-Disaster.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24(1): 277-308.
- Jeong, Sang Hun. 2009.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Volunteer Activities in an Disaster Area: Focused on the Hebei Spirit Accident. Master's Dissertation. Kong Ju National University.
- Ji, Eun Gu, Je Hui Son, and Min Ju Kim. 201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Social Capital Indicator that Social Workers to Recognize and Examining the Validity. *Social Science Research*. 31(1): 161-192.
- Kaniasty, K. 2012. Predicting Social Psychological Well-Being Following Trauma: The Role of Postdisaster Social Support. *Psychological Trauma: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1): 22-33.
- Kim, Jin Gwan. 2018. A Study on the Effects of Public-Private Disaster Cooperation System and Communication Local Disinfection Power. Ph.D.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 Kim, Su Dong, Sang Ok Choi. 2017. The Analysis of Disaster Relief Network System in the Private-public Cooperative Local Disaster Response: Focus on the Cognitive Accuracy Model. *The Korea Local Administration Review*. 31(4): 253-287.
- Kim, Young Ju. 2019. Effects of Disaster Victims' Satisfaction with Relief Services and Equity in Subsidy Distribution on Perceived Disaster-Relief Performance. *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28(2): 161-186.
- Lee, Jeong Su and Eung Sik Kim. 2004.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Design and Management Guidelines of Elderly Facility through Reviewing of Evacuation Behavior.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6): 145-154.
- Lee, Jin Sook, Eun Ju Lee, and Soo Kyoung Lee. 2018. A Comparative Study on the Mental Health and Health-Related Quality of Life in Victimized Community Residences Before and After

- Sewol Ferry Disaster.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0): 895-903.
- Lee, Ju Ho and Jung Hwan Bae. 2014. Overcoming the Crisis in Disaster Area by Social Economy: Focused on the Disaster Effects and Recovery Issues of Hebei Spirit Oil Spill. *Crisisonomy*. 10(6): 1-26.
- Lee, Ju Ho. 2012. Analyzing the Policy Networks Model of Disaster Relief in Damaged District by Typhoon. *Korean Local Government Review*. 13(4): 103-129.
- Lim, Da Hee, Seong Suk Tak, and Sun Woo Lee. 2019.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Occurrence of Disaster Conflict. *Crisisonomy*. 15(5): 85-101.
- Lim, Hye Sun and Kyung Ok Sim. 2018. The Effects of Life Changes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fter Disaster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26(4): 319-326.
- Min, Moon Kyung, Hye Sun Joo, and Hyun Nie Ahn. 2018. Psychosocial Factors Influential to the Mental Health of the Public Indirectly Affected by the 9/12 Gyeong-ju Earthquake: Focusing on Individual Resilience, Social Support, Social Capital, and Public Trus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9(5): 93-116.
- Min, Sung Kil. 2002. *Korean Version of WHOQOL*. Seoul: Hanampc.
-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2019. <https://www.mois.go.kr>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5. Effectiveness Analysis, Improvement and Assessment Methods Developments for Disaster Relief Services.
-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2017. Long-term Investigation of Disaster Victims and Development of Life-friendly Relief Policy Technology.
- National Geography Information Institute. 2017. The National Atlas of Korea.
- Park, Jae Mook. 2009. A Study of Volunteers Participating in the Disaster Recovery of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ademic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for Environmental Sociology in Taean. 3-31.
- Park, Sang Hyun. 2018. A Study on How to Improve Disaster Relief System for Boost of Resilience of Disaster Victim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Shin, Dong Ho. 2008. Review of the Compulsory Storm and Flood Insurance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Insurance and Finance*. 54: 77-107.
- Shin, Sang Yong. 2013. A Study on the Safety Village for Residents Participation of Residents. The Seoul Institute. 134: 1-24.
- Smith, B. K., J. Dalen, K. Wiggins, E. Tooley, P. Christopher, and J. Bernard. 2008. The Brief Resilience Scale: Assessing the Ability to Bounce Back.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5(2): 194-200.
- Son, Hyo Sun. 201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Vicarious Posttraumatic Response and Growth Inventory(VTRG). Master's Dissertation. Keimyung University.
- Yang, Ok Kyung. 2004. Analysis on Korean Family Policy. *Ewha Social Welfare Review*. 5: 1-42.
- Yoo, Soon Duck. 2016b. A Study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Private Sector for Disaster Management.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16(4): 171-179.
- Yoo, Soon Duck. 2016a. A study on Improvements of Disaster Management with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Internet,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16(2): 171-180.
- Yoon, Sang Hoon, Su Ran Kim, Hye Seon Lim, and Sang Hyun Park. 2018. Needs Analysis of Relief Service for Disaster Victims through the Interview Investigation. Academic Conference of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273-273.
- Yu, Eun Kyung and Hyun Soo Seol. 2015. Factorial Structure of the Social Support Scale. *Survey Research*. 16(1): 155-184.

Korean References Translated from the English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5. 재난구호서비스 효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및 평가기법 개발.
-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7. 재난피해자 삶의 변화 추적조사 데이터 설명회 자료집.
- 국립지리정보원. 2017. 대한민국 국가지도집.
- 김수동, 최상욱. 2017. 지역재난대응 민관협력 재난구호 네트워크 분석: 인지정확도 모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31(4): 253-287.

- 김영주. 2019. 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재난지원금 형평성이 재난구호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연구. 28(2): 161-186.
- 김진관. 2018. 민관재난협력체계와 의사소통이 지역방재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민문경, 주혜선, 안현의. 2018. 912 경주 지진을 간접 경험한 일반인의 정신건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 개인 리질리언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자본, 공적 신뢰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19(5): 93-116.
- 민성길. 2002. 한국판 세계보건기구 삶의 질 척도 지침서. 서울: 하나의학사.
- 박상현. 2018. 재난피해자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재난구호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공학박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대학원.
- 박재목. 2009.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 복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연구. 한국환경사회학회 태안종합학술대회 자료집. 3-31.
- 손효선. 2016. 대리 외상 후 반응·성장 척도의 개발 및 타당도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대학원.
- 신동호. 2008. 풍수해보험의 의무보험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험금융연구. 54: 77-107.
- 신상영. 2013. 주민참여형 안전마을 만들기.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134: 1-24.
- 양옥경. 2004. 한국가족정책의 현황과 분석: 정책에 내재된 가족주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이화사회복지연구. 5: 1-42.
- 유순덕. 2016a. 재난관리 민관협력 개선방안 연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집. 16(2): 171-180.
- 유순덕. 2016b. 재난안전분야에 대한 민간기업의 사회공헌 연구. 한국인터넷방송통신학회논문집. 16(4): 171-179.
- 유은경, 설현수. 2015. 사회적지지 척도의 요인구조 탐색. 조사연구. 16(1): 155-184.
- 윤상훈, 김수란, 임혜선, 박상현. 2018. 면담조사를 통한 재난피해자 구호서비스 Needs 분석. 한국방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73-273.
- 은현정, 권태완, 이선미, 김태형, 최말례, 조수진. 2005. 한국판 사건충격척도 수정판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신경정신의학. 44(3): 303-310.
- 이정수, 김응식. 2004. 노인시설의 피난행태 분석을 통한 건축계획 및 운영관리 지침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20(6): 145-154.
- 이주호, 배정환. 2014. 재난피해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위기 극복방안 연구: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피해와 재난복구 이슈를 중심으로. Crisisonomy. 10(6): 1-26.
- 이주호. 2012. 재난 피해지역에서의 재해구호 정책네트워크 분석: 태풍 에위니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연구. 13(4): 103-129.
- 이진숙, 이은주, 이수경. 2018. 세월호 참사 전후 피해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및 건강관련 삶의 질 비교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8(10): 895-903.
- 임다희, 탁성숙, 이선우. 2019. 재난갈등의 발생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Crisisonomy. 15(5): 85-101.
- 임혜선, 심경옥. 2018. 재난 후 생활변화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研究. 26(4): 319-326.
- 정상훈. 2009. 재난지역 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해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 정순돌, 김종희, 김고은. 2011. 재난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부부관계 변화.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1(5): 169-174.
- 조민경, 윤홍식, 윤주이. 2018.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대응 방안에 대한 고찰. 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595-597.
- 조용래, 양상식. 2013. 자연재난 생존자들의 장기적인 심리적 증상들에 대한 예측요인으로서 외상 당시의 해리, 외상 후 부정적 신념 및 사회적 지지 부족. 한국심리학회지. 32(4): 955-979.
- 지은구, 손제희, 김민주. 2015. 사회복지사가 인지하는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과 타당도 연구. 사회과학연구. 31(1): 161-192.
- 최남희, 변주훈, 한동일, 임숙빈. 2007. 자연재난 집중호우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과 우울. 정신간호학회지. 16(2): 139-149.
- 최남희. 2006. 재난피해자 사후 지원: 재난 피해자의 사회복구. Crisisonomy. 2(2): 1-18.
- 최송식. 2016. 한국의 재난복지의 개념정립을 위한 이론적 고찰.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2(2): 39-91.
- 최윤정, 구원희, 백민호. 2017.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재난안전에 관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재난정보학회. 13(3): 388-397.
- 한동우. 2006. 우리나라 재해구호체계의 문제점과 해결 과제: 재난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민간 부문의 구호체계 네트워킹. Crisisonomy. 2(2): 36-51.
- 한승주. 2018. 사회재난 이후, 정부의 대응과 책임 변화. 정부학연구. 24(1): 277-308.

재난대응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 재난 피해자의 공공 및 민간지원 만족도를 중심으로 -

국문초록 현재 우리나라 재난대응 체계는 공공과 민간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재난에 있어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공공지원 및 민간지원에 대한 만족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재난 피해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연령대가 높거나 기혼인 사람들이 공공지원에 만족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피해자가 경험한 재난 유형에서는 화재 피해자가 태풍 피해자보다 공공지원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관련해서는 충청지역의 피해자가 수도권 지역의 피해자보다 공공지원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았다. 재난 피해자의 사회적 특성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사회 참여도가 높을수록, 사회적 불만이 높을수록 공공지원에 만족할 가능성에 높게 나타났으며, 재난 피해자 개인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서는 체감 피해 규모가 클수록 공공지원에 만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재난피해자, 공공지원, 민간지원, 지원 만족도, 민관협력

Profiles **Yun Jung Choi** : She received her M.A from Pusan National University. She is a researcher of Disaster Welfare Agency Training Professionals, located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also a doctoral stu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Social Welfare. Her areas of interest and research are handicapped welfare and social welfare policy(yunjaaa@hanmail.net).

Bo Reum Kim : She received her M.A. from University of York in 2013. She is a researcher of Disaster Welfare Agency Training Professionals, located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also a doctoral student of Pusan National University majoring in Social Welfare. Her areas of interest and research are social welfare policy and international social welfare(dianakim15@naver.com).

Byung Hyun Park : He received his Ph.D. from Pennsylvania University. He is a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His major field of education is social policy. He has published a number of articles in journals and written books(bhpark@pusan.ac.kr).